어린이 책꽂이

▲준비됐지=중견작가 김옥씨의 장편동화다. 동생의 죽음으로 덮쳐든 불행과 죄책감, 사춘기 아이로서 눈뜨는 욕망과 상실, 부모의 억압적 기대에 따른 불안감 등 갖가지 성장의 진통을 외롭게 겪어내는 한 소년의 이야기다. 자위나 몽정, 개신교의 왜곡된 신앙 등 아동문학에서 쉽게 다뤄지지 않던 이야기들이다. 〈창비·8천500원〉

▲내 사랑스런 개코 원숭이=스웨덴을 대표하는 작가 울프 닐손의 감동 동화. 마을의 집을 점령한 개코원숭이 무리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다. 마을 사람들은 원숭이를 쫓아낼 방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자연과 인간의 아주 특별한 우정이야기가 남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훈훈하게 펼쳐 진다. 〈시공주니어·8천500원〉

▲못말리는 꼬마 과학수사대=명탐정 꼬마천재들과 함께 풀어 보는 만화추리퀴즈. 똑똑한 대장 '제롬'과 깜찍한 돋보기 소녀 '바비', 말썽꾸러기 '알도'와 호기심 많은 카메라 소년 '두둔', 침착하고 신중한 '패티' 등 다섯 명의 꼬마 친구들이 온 동네를 누비며 재미있는 과학수사대 놀이를 펼친다. 〈한울림어린이·9천원〉

▲엄마는 응오꾸엔 대왕의 딸='다문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준호 이야기를 동화로 그려냈다. 베트남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준호는 친구들이 놀려도 베트남 영웅 응오꾸엔 대왕의 38대 자손인 엄마가 늘 자랑스럽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일깨우는 동화다. 〈가문비 어린이·8천900원〉

▲수상이된 한나=노르웨이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해 온 작가 토레 툰고덴 의 첫번째 작품으로 10살 소녀가 노르웨이의 수상이 되어 나라를 꾸려간다는 내용. 수상이 되자마자 '사탕부', '웃음부'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어린이가 꿈꾸는 세상 이야기와들고 기성 사회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함께 전한다. 〈예림당·8천원〉

▲뚱뚱한 감자는 즐거워=작품 속 주인공 '나'의 몸무게는 95킬로그램, 그런 과체중 몸무게에 대해 비관적인 듯하면서도 음식에 관한 시와 재치 있는 문장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해와나무·7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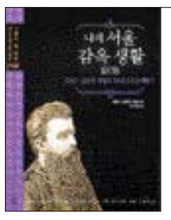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는 물새=물새는 습지를 좋아한다. 물새들은 갯벌에서 게나 조개를 잡아먹고 강에서 물고기도 잡아먹는다. 책에는 갯벌, 강, 늪, 논 같은 습지에 날아드는 물새 26종의 세밀화 100여 점이 담겼다.그림책처럼 보는 세밀화 도감 '내가 좋아하는 시리즈'가운데 '물새'편. 〈호박꽃·1만5천원〉

▲난 선생님 아니야=이혜영 시인의 자연과 사물을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들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 내고 있는 동시 모음집이다. 표제작 '난 선생님 아니야'를 비롯 50편의 작품을 담았다. 〈청개구리·7천800원〉

푸른 눈에 비친 130년 전 조선의 감옥

'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

펠릭스 클레르 리델 지음



130년 전 조선 말기 감옥의 모습은 어땠을까. 푸른 눈의 이방인에겐 이런 풍경이 또 어떻게 비춰졌을까.

'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은 프랑스 선교사인 펠릭스 클레르 리델(1830~1884년)이 1878년 1월 말부터 6월 초까지 5개월 동안 서울에서 체험한 감옥 생활을 담은 일종의 회고록이다.

그는 1866년 병인박해 때 중국으로 피신하여 11년이 지난 뒤 선교활동을 하러 다시 조선에 왔다가 잡혀 이듬해 서울 포도청에 투옥됐다. 리델은 당시 한국 최초의 프랑스어 사전인 '한불자전'(1880년)과 첫 한국어 문법책인 '한어문전'(1881년)을 간행할 만큼 한국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새로 죄수가 들어오면 통과의례였던 것이 '차꼬'라고 불리는 나무로 만든 족쇄를 채우는 것이었다. 목판 두 개를 맞대 놓은 것으로 길이 4m, 폭 15cm가량인 이 족쇄를 발에 채우며 옥졸(獄卒)들이 그에게 한 말은 "이것이 이곳의 관례이고 방손님을 처음 받으면 손님의 발을 이 기구 안에 넣어 놓게 한다"였다

푸른 눈 이방인에게 비친 조선 말기 감옥의 모습은 '지상에 존재하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것'이었다. 낙안읍성 동헌. 〈광주일보 자료사진〉

그는 신입 죄수의 입방 신고식부터 죄목별 차등대우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조선 감옥의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그는 당시의 감옥을 "지상에 존재하는 지옥의 상(像)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식수를 제외한 유일한 물은 감옥 중앙에 있는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 하지만 이 물을 사용해 씻을 경우 피부병을 얻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 더위와 추위, 환기가 안 되는 비좁은 공간, 열악한 식단으로 건강을 잃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저자는 회고한다.

"보통 수감자들은 도둑, 채무 죄수, 신도들이지만 가끔 포졸의 계략으로 들어온 무고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동반자가 된 수감자들의 군상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옥졸들은 '야만인'으로 그려진다. 죄수들에게 밤새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고, 형벌 받는 모습을 즐기기까지 한다. 내연 관계에 있는 유부녀를 가로채기 위해 무고한 사내를 잡아들여 반불구로 만드는가 하면 구타로 사망하는 죄수가 속출하는 등 감옥에서 자행되는 옥졸들의 횡포는 극에 달했다

저자는 "신자들에 대한 형벌이란 다리와 팔을 비틀거나 공중에 매달기 같은 것들이다. 무엇보다 마음 아팠던 건 현장에 있는 포교들과 형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비웃으며 재미있다는 듯 크게 소리를 내어 웃는 것이었다"라고 쓰고 있다.

저자는 이밖에 자유의 몸이 된 수감자가 남아있는 자들의 석방을 기원해 베푸는 잔치, 죄수들 사이에서도 혐오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묘사, 사형 방법 등 감옥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책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기술이기에 그만큼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나라 조선에서 인간의 정이란 얼마나 끔찍한가"라는 저자의 표현을 접하는 순간 인간의 잔혹함에 가슴이 저린 것은 어쩔 수 없다.

한국 관련 희귀 서양 고서를 국역한 살림의 '그들이 본 우리(Korean Heritage Books)' 총서 시리즈 6번째 책으로 발간됐다. 〈살림·1만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화 기자가 본 '한국 사회'

'대한민국 표류기'

허지웅 지음

영화 잡지 '프리미어'의 허지웅 기자는 영화 뿐 아니라 세상사 돌아가는 일에 대한 글도 많이 쓴다.

방문자 수가 수백만에 이르는 블로그(ozzyz.egloos.com) 운영자이기도 한 그의 글은 관점이 뚜렷하고 직선적이다. '전공'인 영화 관련 이야기를 쓸 때도 그렇지만 '시사' 관련 글을 쓸 때는 가차없다.

올해 서른을 맞은 그가 그간 쓴 글을 묶어 '대한민국 표류기'라는 제목으로 펴냈다. 주종목인 영화와 개인사, 대한민국 정치·사회·경제·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담긴 책이다.

1부 '작은 사람들의 나라'는 개인적인 이야기(어떤 글은 너무 솔직해 보인다)를 통해 대한민국 이십대의 초상을 알싸하게 그려냈고, 2부 '큰 사람들의 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요즘 모습을 신랄하게, 하지만 애정을 갖고 적어나갔다.

3부 '하늘을 나는 섬의 나라'는 저자의 본업인 영화에 관한 이야기다. '과속스캔들', '추격자', '다크 나이트'등 화제작들에 대한 그의 시각이 흥미롭다. 일정 정도 '코드'가 맞는 사람은 한번 잡으면 놓기 어려운 책이다. 〈수다·1만 3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은의 대표 시집 한데모아

'오십년의 사춘기'

김형수 엮음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형수씨는 칠순을 넘겨서도 여전히 들끓는 열정을 쏟아내는 고은(76) 시인에 대해 전대미문의 돌발사태이자, 현재진행형 사춘기라고 표현했다. 김씨가 이 '들끓는 사춘기' 고은의 대표시 66편을 모아 시집 '오십년의 사춘기' 한권에 묶었다.

시인의 첫 시집 '피안감성'(1960)부터 지난해에 출간된 등단 50주년 기념 시집 '허공'에 이르는 고은 시 오십년 정수만을 모았다.

초·중·후기 순으로 제1부 '집을 버리다'편, 2부 '외치다'편, 3부 '다시 길을 가다'편으로 나누고 4부는 '많은 사람들(만인보·萬人報)'편으로 구성했다.

'허무주의'로 특징 지워지던 시인의 초기 시에는 생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면 중기라고 할 수 있는 1970~1990년대 시에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 반영됐다.

중기 시 가운데에는 2002년 김영사에서 출간한 고은 전집에선 빠졌던 '벽시'도 수록됐다. 이 작품은 1980년 '실천문학' 창간호에 '무단'이라는 가명으로 발표된 시다. 〈문학동네·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자 왈저

'정치철학 에세이'

데이비드 밀러 엮음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적 연대를 주장하는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왈저 교수의 주요 저술을 모은 책 '정치철학 에세이'(원제 Thinking Politically : Essays in Political Theory)이 나왔다.

왈저 교수는 베트남전 이후 미국 반전 운동을 이끈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자유주의, 시민 사회 등에 관한 독창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간 저널, 책 등을 통해 저자가 발표한 내용을 영국 옥스퍼드대의 데이비드 밀러 교수가 왈저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별해서 편집했다. '철학과 정치' '자유주의' '시민사회와 국가'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인도적 개입과 인권' '정치 도덕' 등 6가지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철학자들의 정치참여를 주문하고, 시민 사회의 정치적 참여를 긍정하면서도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또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집단학살이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인도적 개입을 지지한다. 〈모티브 북·3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민공인중개사
☎ 핸 011-635-7939, 010-2810-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맞은편 2층)

건 물
▶예술의거리 5억5천 미술학원적합 건물 대70P 건160P 지상4층 지하1층 급매
▶13억9천 빌딩 20x10m코너 전대 후문 대110P 건320P 보3억3천 월900만원
▶12억점포 8칸 빌딩부지 30x6m코너 보증금 1억 월550만원 포함
▶17억5천 1층점포 12칸 병원부지 보증금 1억5천 월750만원 포함 아파트7,000세대 상권
▶22억 마트겸 투룸매매 대250P 건800P 1층 대형마트 투룸51개 주택별도 지하1층 지상7층 보2억3천만원 월1,600만원 포함
▶26억 상업지역 빌딩 대185P 건890P 보증금5억 월1,800만원
▶41억 상업지역 빌딩 대200P 건1,100P 보12억 월세2,000만원
▶47억 빌딩 대600P 건1,000P 보10억 월세3,000만원 용지 20억 포함
북구 63억빌딩 대지2,990㎡ 건물4,500㎡ 현대식건물(대형엘리베이터) 6차선 도로접 안정된 우수업체 입주상권유지 경제성 최고 매63억 조정가(용30억, 보18억 월4,500만원 포함)
▶120억 공장부지 공업지역 12,000P현재 공장 운영중

시내, 시외 주유소 급매
▶9억 주유소 급매 대300P 35m 도로변
▶13억5천 시내주유소급매 대400P 일매출 800만~900만원
13억 5천 화순용주유소 대지 1,800㎡ 현재 1억 보증금 월세 600만원 포함
4억7천 별장부지 전원주택부지 화순청풍 10,000P전답임야 현재 국도접 정원수식재 계곡있음

병원부지 전문중개
13억 병원 약원용 건물 급매 대115P 건420P 지하1층 지상5층
문흥동 상업지역 아파트 정문 빌딩 부지140P 14억 현재 가건물 보증금 1억7천 월세700만원포함

땅
▶각화동 정비 공장부지600P 상업지역 35m도로접 P당 270만원

6억 사찰 급매
곡성 대2,000P 건200P 광주에서 30분
▶담양 금성 1,600P P당 10만원 주택포함 남향
▶순창 금과 2,780P P당 5만원 계획관리지역
▶창평 4,200P 9억 제1종 주거지역
▶골프연습장 부지38,000P 자연녹지 북구 P당 5만원
▶과수원 묘지가능 그린벨트 임야 1,800P남향 경사도 15도미만 진입로 있음 삼성홈플러스에서 10분거리 P당 5만원
▶동림동 생산녹지 800P당 매매8억
▶담양 임야 25만P P당 3,000원 조정가
▶담양 관리지역 2,000P 2차선 도로접 임야 P당 8만원
▶창평 6,000P P당 8만원
▶골프연습장부지 3,000P P당 120만원 30m 도로접 북구
▶임자부지 2,700P P당 7만원
▶옥과소재지 2억 전원주택·과수원 1,500P 2억
▶서창동 주거지역 아파트·빌라부지 1,700P P당 120만원

하남공단 냉동창고점 식품회사 급매
공장부지 4,000P 건물1,400P 매매가 48억

공장급매
각화동에서 10분 6억7천 대지1,400P 건물500P

APT 1,800세대 마트겸 목욕탕
대120P 건270P 현재 주인 직영중 매12억

무인모텔 급매
38억 대지 900P 건1,000P 2008년 3월오픈 월 매출1억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구함 수완지구 건축상담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수완지구 333-1(명의변경가능) 60미터 대로변 상업용지, 3면도로 주차장인접 720㎡ 3.3㎡당 6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당 210만
▶수완지구 단일평형 170세대 정문앞 아주 자택지 330㎡ 3.3㎡당 450만원
▶광산구 수완동 35m 대로변 자연녹지 답 1,762㎡ 4,231㎡ ㎡당 70만(분할가)
▶광산구 신촌동 광송간대로변 지하철역 앞 상업지역 대지 286㎡ 매가 2억 9,000만
▶광산구 유계동 답4,300㎡ ㎡당 41,000원
▶광주 북구 동림동 6차선 대로변 대지 1,533㎡ 3.3㎡당 480만원

상가매매
▶문남동 주공9단지앞 PC방 183㎡(시비있음) 매매가2억 3천만원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시장,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임대중(평수 다양)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리바게뜨 입점확정
2층 파파존스 피자 입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正心 正視 正行
☎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추천물건
▶장성 백양사입구 식당 및 호텔대지2,645㎡ 건958㎡ 매17억
▶보성율포해수욕장 민박집 및 최고의 전원주택 바닷가 전망,경관 최고의 자리. 대882㎡ 건172㎡ 매가 3억2천
▶곡성 곡성읍 구원리 관리지역 9,917㎡ 매가 5억4천만 공장, 창고, 기타용도적합(큰도로접 주변시세 이하)
▶담양 봉산면 연동리 전1,676㎡ 농림지역,차량진입가능,주말농장등, 소액투자적합, 매가3천6백만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운월리 900골프장 부근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접 대전 6,529㎡ 전원주택 1동(복층형) 147㎡ 조경수 포함 전망좋음(사찰,가든,찻집,공장 등 적합)매가 5억

토지매매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826㎡ 매가 33억
▶남구 행암동 2,215㎡매가 2억7천만
▶담양 대덕면 갈전리 대(전포함) 5,573㎡ 관리지역 차량진입가. 가든,절터,전원주택 적합 매가 1억8천만
▶담양 수북면 대방리 창고부지10,925㎡ 2차선도로접 매가 8억3천만
▶전남 무안읍 성남리 주거지역 4차선접 1,474㎡ 매가 3억2천만

토지매매
▶담양 봉산면 대추리 주거지역 대2,056㎡ 매가 1억 급매
▶목포시 용해동 법원 근처 대739㎡ 도로접, 다가구주택허가됨 매가 1억5천 급매
▶전남 화순 춘양면 용두리 (대,전,임)76,003㎡ 매11억5천만 관리지역, 전원주택지등 적합.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전,임) 관리지역 2차선도로접 7,626㎡전망좋음,공장등가,매가4억5천만
▶담양 금성면 대곡리 2차선접 관리지역 대 3,305㎡ 매가 2억4천만 (분할 매매가)
▶담양 금성면 대성리 관리,농림임 39,669㎡ 매가 1억8천만
▶나주 문평면 대도리 대임 3,758㎡ 주택 1동 매가 1억8천만 전망좋음
▶담양 대덕면 입석리 관리,농림임 55,537㎡ 매가 5억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답5,692㎡ 관리지역 현 밭으로 이용중 매가 1억2천500만

상가등
▶남구 월산동 지하1층 지상3층 대514㎡ 건866㎡ 매가 8억7천만
▶북구 신안동 모텔 지하1층 지상7층 객실 30개 매가7억
▶광산구 신창동 1층 상가 2-3층 원투룸 보·융 2억8천만 월 520만 매가7억(조정)대278㎡ 건487㎡

♣ 필요하신 각종 토지를 용도에맞춰 최선을 다해 구해드립니다.
♣ 토지 투자물건 다량 보유!! ♣ 24시간 전화상담및 물건 접수!!

명성공인중개사
016-611-3424
011-625-0510
수완지구
1일 유동인구 30만명
모아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접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이동통신/약국/안경점/호프전문점/김밥점포앞 잔디광장 300㎡ 있음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타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가원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타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2009년 3월 입주예정

다우공인중개사
☎523-8114 핸 011-603-1308
(용봉지구 현대3차 사거리)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360㎡/건841㎡(지상4층)/12m도로변 코너/용5억6천만/보2억3천월800만원/매가12억7천만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437㎡/건870㎡(지상4층)/15m도로변 코너/용6억2천만/매가13억5천
▶최고급 무인텔
• 대2,057㎡/건2,248㎡/객실28/용15억/매가28억원
▶농장용지(함평군 대동면)
• 전46,350㎡/2차선 도로접/분할가능/매가 6억5천만
▶창고부지 및 전원주택지(고서면)
• 14,109㎡(주거지역8,870/그린벨트5,239)/현재 단감농원/매가8억5천만
▶전원주택지 및 창고부지(장동동)
• 1,421㎡/1종 주거지역/복개도로접/남향/10m도로계획선접/매가2억 5천만
저희 사무소는 전속중개 의뢰한 물건만 취급합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